

초기불교 교단사의 재구성

-요하네스 브롱코스트가 그리는 고대 인도-

강형철(동국대)

문헌적 증거에 따르면 고대 인도의 사성 계급(Varna)을 인정하는 브라흐마니즘(Brahmanism) 문화권 내에서 그에 대한 반발로부터 출발하였다. 붓다(Buddha)는 깨달음을 얻기 전 이미 베다(Veda)의 교의를 잘 알고 있었고, 전통의 사성제 계급을 부정하였고, 우파니샤드의 자아(ātman) 관념을 비판하여 무아설(anātmavāda)을 주장하였다. 그는 현세적인 브라만교의 입장과 자이나(Jaina)로 대표되는 극단적인 고행주의의 입장 사이에서 중도를 취하였다.

위에 요약된 내용은 수많은 불교개론서나 인도철학사/인도불교사 관련 서적에서 공통적으로 그리는 불교라는 세계 종교의 서막이다. 이와 같은 붓다 당시의 상황에 대한 묘사는 막스 뮐러(Max Müller)로부터 시작되어 근대의 초기 불교학자들에 의해서 구체화되어 일반 불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기본 상식이 되었다. 초기 인도학의 대가인 막스 뮐러는 오랜 세월을 두고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두 가지 이론

을 남겼는데, 그 중 하나가 아리아인(Aryan) 침략설이고, 다른 하나는 위의 인용이 반영하는 불교의 브라흐마니즘 문화권 기원설이다. 그 중에서 아리아인 침략설의 경우 새로운 고고학적인 발견의 반영과 문헌학적인 재해석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반박되어 왔고, 또한 그 학설이 내포하고 있는 제국주의와 인종주의와 연관되는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적인 요소가 지적되면서 비판받고 수정되는 과정을 겪어 온 반면에, 불교의 브라흐마니즘 문화권 기원설의 경우 그 증거가 의외로 충분하지 않고 논의의 여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계 내외에서 확정적인 역사적 사실로서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어왔다.

그에 관한 반론이 근대 불교학의 태동 이후 한동안 전혀 부각되지 않았고, 일부의 문제제기가 경시되거나 묵살되었던 이유 중 하나는 고전 문헌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가지는 권위적인 보수성 때문일 것이다. 서구인들이 유럽 문화의 근원으로 찬양하는 그리스 문화의 기원이 자생적이라는 종래의 정설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그 생성에 아프리카/아시아적 요소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 증거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블랙 아테나(Black Athena)』(1987)의 저자 마틴 버넬(Martin Bernal)은 고전 문헌학을 연구하는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고대 언어의 습득의 어려움과 번역의 제한성 때문에 학생 시절부터 그 분야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개인적 현실이 습관화되어 학자가 되어서까지도 그것이 답습되는 교육 구조에 대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이는 불교학과 고전 인도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있어서도 의미심장한 지적일 것이다. 불교학과 고전 인도학을 공부하기 위하여 산스크리트(Sanskrit)어를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동사의 수동태(passive)의 용법이나 명사의 소유격(genetive)이 형성하는 구문을 번역하는 방식 등과 같은 문법적 사항들에 대해서-비록 그것이 불가피하다 할지라도-한 치의 이

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문헌 읽기를 시작한다. 그 시기에 형성된 고전 문헌을 해석하는 태도가 나중에도 학문적 연구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다. 그러한 문헌학계 일반의 보수적인 태도는 고전 문헌학의 성격상 어쩔 수 없이 취할 수밖에 없는 태도인 동시에 새로운 사색을 저해하는 요소임에도 틀림없다. 이는 초기불교와 관련된 몇 가지 학설에 국한된 문제만이 아니라 고전 문헌학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고민거리일 것이다.

하지만 몇몇 선구적인 불교학자들 사이에서 그에 대한 회의와 도전이 이루어져 왔고, 흥미로운 결과들이 발표되었다. 붓다가 탄생했던 북동부 지역이 당시에 브라흐마니즘 문화권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초기경전에 나타난 붓다가 비판하는 사상이 과연 우파니샤드의 교의를 지칭하는 것인지,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초기교단의 역사가 확실한 사실인지, 그리고 초기경전이 기술하는 수많은 내용 모두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자들이 당연시해왔던 초기불교 교단의 실상들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요청되었다.

요하네스 브롱코스트(Johannes Bronkhorst)는 구미 학계에서의 그러한 회의와 도전의 중심에 서 있는 학자들 중 한 명이다. 그는 13권의 저서와 100편이 넘는 논문, 수십 편에 이르는 서평과 사전 편찬에 참여하는 등 꾸준하게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다. 그가 초기불교 당시의 모습에 대해서 취하는 일관된 태도는 마치 씨리즈처럼 이어지는 그의 3권의 저서 『고대 인도의 두 명상 전통(*The two traditions of meditation in ancient India*)』(1986), 『인도 고행주의의 두 근원(*The Two Sources of Indian Asceticism*)』(1993), 그리고 최근의 연구를 반영하는 『대(大) 마가다(*The Greater Magadha*)』(2007)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초기 불교 당시의 사정에 대한 진위를 파

악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발표된 그의 연구 결과들은 즉각적으로 지지와 반대를 수반하였다.

브롱코스트의 문헌학적 방법론은 여러 경전의 내용을 비교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일군의 학자들과 궤를 같이 한다. 비슷한 주제를 묘사하는 여러 버전의 경전들 사이에 나타나는 내용의 불일치를 주목하고 그 불일치하는 경전 사이의 선후 관계를 구별하여 역사적인 층위를 나눈다. 그리하여 초기경전에 나타난 불일치를 불교 교단 내의 논의의 발전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기존에 초기불교 교단에 관하여 묘사되었던 그림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다. 하지만 그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전혀 다른 결과들을 도출한다. 그는 그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대안들을 다시 제출한다. 그것이 많은 그의 지지자들을 양산하는 요인인 동시에, 그의 서술방식과 연구결과를 전면적으로 비난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은 원인이기도 할 것이다.

또한 브롱코스트는 전공 분야가 점점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현대 불교학계의 주류 학자로서는 드물게 비(非)불교적 교의-자이나, 아지비카(Ājīvika), 상키야(Sāṃkhya), 요가(Yoga), 미망사(Mīmāṃsā) 등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학자 중 하나다. 그러므로 그는 비불교적 종교들에 관한 기술들을 불교 경전 내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찾아내거나 인도에서는 소실된 경전들에 관한 인용을 다른 경전 내에서 찾아내어 이를 종합하는 데 능숙하다. 예를 들어, 『상키야에서의 속성(The Qualities of Sāṃkhya)』(1994)에서는 고전 상키야에서 오로지 3질(triguṇa)과 관련해서 기술되던 guṇa라는 용어가 일반적인 속성을 포함한 이원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던 흔적과 그 기원을 파탄잘리(Patañjali)의 『마하브하샤(Mahābhāṣya)』와 『니야아수트라(Nyāyasūtra)』, 그리고 나가르주나(Nagārjuna)와 디그나가

(Dignaga)와 같은 불교 논사들의 저작들 속에서 찾아낸다. 『prākṛta dhvani와 상키야의 5유(*prākṛta dhvani and Sāṃkhya tanmātras*)』에서는 언어철학자 바르트리하리(Bhartṛhari)가 발화를 음성학적인 근원(prākṛta dhvani)과 음성의 실현(vaiṣṛta dhvani)으로 구분하고 그것에 관하여 설명하는 방식이 상키야에서 5유(tanmātra)가 5대(mahābhūta)로 전개되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과 유사함을 지적하고 그 근원을 여기서 찾는다. 카토 준쇼(加藤准將) 교수의 화갑기념 논문에 제출되었던 『아비다르마와 자이나교(*Abhidharma and Jainism*)』(2000)에서는 푸드갈라(Pudgala)와 찰라멸(kṣaṇika), 업의 작용 등 부파불교의 시대에 새롭게 제기되고 정비되었던 철학적인 주제들에 관하여, 이전의 자이나교의 교리 속에서 철학적인 착상 속에서의 유사성이 드러나는 사례들을 제시한다. 『업과 목적론(*Karma and Teleology - A Problem and its Solutions in Indian Philosophy*)』(2000)에서는 목적지향론, 기계론, 신의 문제 등 업설에 관한 문제들에 직면했던 불교, 바이췌시카, 상키야, 요가 등의 인도 전통의 사상들의 문제제기와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각각의 교의를 개설하고 그의 방식으로 범주화하며, 이와 관련된 현대 과학, 심리학의 논의들을 추가한다. 『고전 인도철학에서의 다르마의 용례(*Some Uses of Dharma in Classical Indian Philosophy*)』(2004)에서는 불교에서 “Abhidharma” 등으로 지칭되는 dharma라는 어휘가 바이췌시카(Vaiśeṣika) 철학과 니야야 철학, 상키야 철학, 미망사(Mīmāṃsa) 철학 등의 고전 인도 철학에서 사용되는 사례들을 분석하여 그것을 패턴화하여 각각의 의미와 그 변용을 밝혀내고 있다. 이 외에도 브롱코스트는 인도의 비불교적 교의들에 대한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불교를 포함한 고대 인도 세계의 다양한 교의들의 관계도를 해명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따라서, 반대로 그의 초기불교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도 또한 비불교 문헌에 대한 그의

폭넓은 시야가 반영되어, 초기경전이 기술하는 내용상에 나타나는 비불교적 요소를 적출하고 그 출처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그러므로 그의 초기불교 연구는 초기 경전을 포함한 불교 초기 문헌에서 기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회의로부터 시작한다. 예를 들어 『고대 인도의 두 명상전통』에서 그는 부파 불교 문헌들과 일부 초기 경전에서조차 붓다의 직접적인 가르침으로 명시하고 있는 4무색정(無色定)을 포함한 9차계정의 선정 분류법이 붓다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가능성의 증거들을 추출한다. 그는 4선정의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4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에 대한 표현법이 4선정에 관한 그것과 불일치하며, 초기 경전뿐만 아니라 일부 초기 부파불교 논서 내에서도 4무색정이 선정(禪定)의 분류법에서 제외되는 전거들을 제시한다. 그리고 4무색정의 명상 방식이 4선정으로 대표되는 불교와 이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자이나가 설명하는 명상법과 유사하다는 점들을 지적한다. 그것은 초기불교 교단에서 존재하지 않던 4무색정의 선정이 어느 시기에 불교 교단에 받아들여지면서 불교의 주된 선정 방식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는 슈라마나(Sramana) 전통 내에서 불교 외부의 세력이 불교 교단에 출가하고, 이들이 교단 내에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4무색정이 불교의 높은 단계의 명상법으로 체계화되었다는 가설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

위와 같은 논리 전개에 예시를 통해서 주장되는 것은 우리가 붓다의 가르침이라고 믿고 있는 초기 경전의 내용들이 그 성립에 있어서 시기상의 순서와 층위를 가진다는 것이다. 4선정만으로 이루어진 문헌군과 4무색정이 포함된 문헌군은 역사적인 선후 관계를 가지며, 그것은 초기 교단의 역사적인 맥락을 통해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저서에서 브롱코스트는 『우파니샤드(*Upaniṣad*)』의 업(*karman*)과 윤회(*samsāra*)에 관한 교의가 지배하는 문화권 내에서 불교가 기존의 업과 윤회에 관한 이론들을 수정하여 체계화시켰을 것이라는 기존의 초기 경전에 근거하여 통용되던 학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그는 파니니(*Pāṇini*)의 문법서(*Aṣṭādhyāyī*)에 대한 파탄잘리(*Paṭañjali*)와 카츠야야나(*Kātyāyana*)의 기술을 통해서 『브라흐마나(*Brahmaṇa*)』와 초기의 『우파니샤드』에서 등장하는 철인 야즈나발키야(*Yājñavalkya*)가 연대 상으로 붓다보다 후대의 인물이라는 전거를 제시한다. 이는 야즈나발키야를 포함한 초기 우파니샤드의 철인들이 붓다에게 영향을 미친 붓다 이전의 인물이라고 생각하던 기존의 설과 대치된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우파니샤드 중 하나인 『브리하드아란야카우파니샤드(*Bṛhadāraṇyaka-Upaniṣad*)』에 작성 시기와 동시대 인물로 등장하는 카쉬(*Kaśī*)의 지배자 아자타사트루(*Ajātaśatru*)로써 통칭되는 왕이 즉 붓다 당대의 마가다(*Magadha*)국의 왕 아자타사투(*Ajātasattu*)와 일치하는 인물이라는 흔적을 초기 경전에서 찾아낸다. 그것에 따르자면, 아자타사투는 초기 경전 상에서 붓다의 말년에 마가다를 지배하였던 왕으로 등장하므로, 이에 따르면 최초로 『우파니샤드』인 『브리하드아란야카우파니샤드』조차도 붓다보다 후대에 작성된 문헌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따르자면 불교의 업과 윤회에 관한 기존에 통용되던 학설과는 반대로 그 영향관계가 역전된다. 이는 불교를 포함한 슈라마나 전통의 업과 윤회, 금욕주의의 교의가 오히려 우파니샤드의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들을 찾으려는 소수의 시도들의 연장선상에 있다.

『고대 인도의 두 명상전통』에서는 인도의 주류 명상전통과 불교의 명상 전통에 관한 서술들을 뽑아내어 상호간의 영향 관계와 명상법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요소들의 출처와 기원을 탐색한다. 이를 통해서 기

존의 학자들이 안일하고 무비판적으로 서술하였던 불교 명상 전통의 특징들에 대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제공한다. 그리하여 이 책에서 브롱코스트는 불교의 명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당연시되어왔던 브라흐마니즘의 영향을 배제하고, 붓다 당시부터 존재했다고 생각되었던 명상법이 역사적으로 층위를 두고 형성되었던 자취를 하나하나 밝힌다. 그것을 통해서 그는 불교 명상의 기원과 고대 인도의 명상 전통-자이나와 아지비카, 우파니샤드와 마하바라타에 나타나는 초기 힌두 명상-에 관한 지형도를 새롭게 재작성하여 그 형성사를 개진한다.

『인도 고행주의의 두 근원』에서 브롱코스트는 계속해서 베다의 전통이 인도 금욕주의의 발현에 영향을 주었다고 믿는 기존의 시각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베다, 브라흐마나, 우파니샤드, 마하바라타 등의 힌두 전통의 문헌들과 팔리 니카야와 자타카 인도에서는 현존하지 않는 한역 경전들에 걸친 폭넓은 문헌에서 업과 행위에 대한 기술, 고행주의적 요소들을 추출하여 자이나와 아지비카, 불교를 아우르는 슈라마나 전통에서 기원함을 효과적으로 논증한다.

그는 이 책에서,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후 2세기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마누 법전(*Manusmṛiti*)』에서 명시하는 학생기(學生期, *Brahmacārya*), 거주기(家住期, *Gṛhasthana*), 임서기(林棲期, *Vanaprastha*), 유행기(遊行期, *Saṃnyāsa*)라는 인생의 지침과 목표가 되는 네 가지 단계(*āśrama*)가 이질적인 요소들의 혼합되는 과정의 최종 결과물로 파악한다. 힌두교도의 이상적인 삶을 나타내는 이 네 가지 단계 중에서 뒤의 두 단계-임서기와 유행기-는 베다의 본집(*Samhita*) 문헌 내에서는 전혀 출처를 찾을 수 없는 요소들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다시 말해 이것들은 비(非)베다적인 요소들이 브라흐마니즘에 유입된 요소들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우파니샤드』에서 브라흐만이 아닌 크샤트리아가 중심이 되어 행위가 이끄는 윤회와 재생의

교의가 설명되는 것을 지적하는 등 초기 『우파니샤드』에 나타난 교의에서의 비베다적 요소에서 찾고자 하는 여러 학자들의 발견과 시도를 종합하여 하나의 일관된 논지로 묶어낸다. 또한 그는 브라흐마니즘 전통에서의 고행주의의 많은 요소들이 자이나 경전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차용하고 있음을 찾아낸다. 그리하여 베다의 제식주의로부터 브라흐마니즘 전통의 타파스(tapas)와 관련된 고행주의가 발현되었다는 도식을 부정한다. 그래서 현재는 문헌이 소실되고 그 일부가 『마하바라타(Mahābhārata)』를 통해서 인용되는 고전기 이전의 상키야-요가가 그 기원이 사실상 비-힌두적 전통에 있음을 주장한다. 이와 같은 방식들을 통해서 그는 불교 전통의 명상법이 비불교적인 명상 전통에 영향을 미친 흔적을 다양한 시각에서 드러내고자 한다.

그의 최근의 저서 『대마가다』에는 기존의 연구의 결론들을 그 출발점으로 하여 초기 교단 형성사에 관한 논의가 종합된다. 그는 이 책에서도 계속해서 불교 전통의 여러 상식들에 대해 회의를 제기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불교의 화장 풍습과 아쇼카 왕의 비문에 관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스투파(stūpa) 속에 유골을 안치하는 것은 아지비카, 자이나, 불교 모두에 나타나는 풍습으로서 브라흐마나에 기술되는데, 아지비카나 자이나 전통이 유골을 스투파에 안치하는 반면에 불교에서는 화장을 통해서 입수한 사리를 안치한다. 하지만 『대반열반경』에서와 같이 불교의 화장의 풍습을 기술하는 경전이 오히려 이질적인 것이고, 실제로 시신을 불에 태우는 장례법은 슈라마나 전통보다는 브라흐마니즘의 전통에 가까운 풍습이다. 그러므로 불교도 초창기에는 유골을 직접 안치하는 전통에서 브라흐마니즘이 유입되면서 시신을 화장하는 전통으로 변경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는 또한 아쇼카 왕이 불교적 신앙으로 비문을 통해서 불교의 법(dharma)을 공표했다는 상식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한다. 아쇼카 왕의 비문의 내용에는 행위